

이슈브리프 292호
(2021. 9.30)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북한 반응

제292호

김종원 한반도전략연구실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



국문초록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작전과 온전한 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의 탈레반의 빠른 정권 장악에 경악하였으며 미국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판하였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도 중국 편들기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실패를 제국주의 세력에 맞선 약소국 국민의 승리로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매우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집권한 탈레반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미국의 개입과 무능한 정권의 몰락, 도전세력의 정권 축출은 북한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들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미래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다잡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아프가니스탄 사태, 중국 편들기, 미국 패권 몰락, 민주주의, 인권, 내부결속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북한 반응

김종원 ·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소)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미국이 2001년 9·11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지 2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구적 평화 작전’을 전개하여 수도 카불과 탈레반의 핵심 거점 칸다하르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탈레반 정부가 몰락했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국은 새로 수립된 민주정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안정화 정책 실패와 아프가니스탄 반군 세력과의 지난한 전쟁, 부패한 신정권과의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미국은 과도한 비용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탈레반이 미군 철군 이후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다. 상하원을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심각한 전략적 실수’와 ‘최악의 외교 참사’이며 미국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신뢰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미국가들과의 연대 및 중국 편들기

미국과 갈등관계인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비동맹운동 가담국들인 나이지리아, 네팔, 베트남, 시리아, 이란, 인도, 쿠바 등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철수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미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전통적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글들을 다수 게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전쟁과 군사적 간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파괴했고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만들었으며 철군 시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였는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중국 편들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근년에 강화된 북중관계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19로 북중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범죄인 송환법’과 ‘홍콩 안전법’ 등 홍콩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에서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를 통해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다. 대만문제 등 여타 이슈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미중 전략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중국 외교부와 언론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그대로 소개해 왔다. 북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고 야망을 추구하려는 행위라는 중국 외교부와 언론의 평가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쇠퇴일로로 걷게 될 것이라며 미국 패권의 몰락을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적 가치의 부정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두고 미국 패권의 몰락까지 운운하는 것은 단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적 가치의 좌절도 미국 패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징후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의 부재를 이유로 북한을 비난해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이나 머무를 수 있게 한 중요한 명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서구사회가 비서구권에 이식하고자 노력했던 민주주의는 허구였고, 인권을 내세운 미군의 군사적 개입은 오히려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우월성이 부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전파하려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 강제로 이식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이 ‘금전민주주의이고 형식적 민주주의, 투표민주주의’일 뿐이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민주주의 공고화가 실패한 것을 두고 미국식 민주주의는 거짓이고 위선이며 민주주의는 외부적 강요로 성사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가 중요시하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양면성을 공격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열악한 인권실태 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련의 민간인 피해를 미국과 서구사회에 대한 역공의 소재로 삼고 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자 북한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미군 철수는 서구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에 의한 인권 침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탈레반과의 동일시 경계

이처럼 대미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도 북한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제국주의 침략국에 대한 약소국의 승리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철수로 집권하게 된 세력이 악명높은 탈레반이기 때문이다. 한편 부패한 정권이 탈레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사실 역시 당·정·군의 부패가 만연한 북한으로서는 공공연하게 거론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권이나 탈레반과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매체를 통해서만 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북한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외무성 홈페이지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소개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글들을 게재해 왔다. 북한 주민들이 몰락한 가니 정권이나 새로 집권한 탈레반 세력과 김정은 정권을 동일시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시민과 반정부세력에 의해 정권이 몰락한 소식을 차단해 북한 내부에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정권과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정권은 모두 권력형 부정부패와 무능함으로 시민들에게서 외면받았다. 미군 철수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무능력이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미군이 철수하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전 재산을 갖고 아랍에미리트로 망명해버렸다. 30만 명에 달한다던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탈레반이

진격해오자 순식간에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도전세력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북한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세력과 자신들이 동일시되는 것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탈레반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과 테러단체로 낙인찍힌 반미세력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나 북한 내부에서 탈레반 세력과 유사한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탈레반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 약속과 다르게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공개처형을 단행하는 등 공포정치를 부활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바라는 북한은 탈레반과의 무기 거래나 우호관계 형성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과의 관계로 인해 북한이 비정상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는 속내는 매우 복잡할 듯하다. 대외전략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 패권의 몰락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해 강요받던 여러 가치를 비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개입,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몰락, 도전 세력에 의한 정권 축출 등 미래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시나리오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당·정·군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워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체제 내부를 결속하는데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북한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하다. 북한 지도부는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가기구와 군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도 반부패 캠페인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